

2008 새해설계 ⑥

포천시 마홀남성합창단장 이유성

“노래 좋아하는 시민 적극적인 참여 기대”

효사랑의 집 장애인들과 합동연주회 계획

“올해는 효사랑의 집에 핸드벨을 구입하여 기증하고 장애인들과 합동연주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7년1월1일 취임한 포천시 마홀남성합창단 이유성(사진) 단장은 지난해에는 지휘자를 새롭게 영입했고 반월아트홀에서 매주 화요일 연습하고 포천시에서 주·간접적인 지원으로 명실상부한 남성 합창단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천시 마홀남성합창단은 1994년6월25일 중창단으로 창단하고 1999년5월15일 합창단으로 발전했으며 매년 1회 정기연주회와 수시연주회를 통해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남성들로 구성된 합창단은 1주일에 1회 반월아트홀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고 있으며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본보기가 되어 화목한 가정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또한 세종문화회관, 국립극장 무대에서 연주회를 개최함으로써 자부심을 갖고 있다. 술을 즐겨하던 회원이 술을 끊고 성격도 달라지고 가정이 화목하게 변해 회원의 부인이 감사하다며 몇 번 전화했다고 밝혔다.

현재 3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합창단은 2007년 제14회 정기 연주회는 영상을 가미하여 연출함으로써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 단장은 “합창은 남을 배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남을 배려하면서 우리사회를 배우게 된다. 합창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선진국이다. 이명박 정부가 얼마 안 걸려도 성공한다고 했는데 합창단 열심히 가르쳐도 성공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포전반월아트홀은 마홀남성합창단이 발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반월아트홀이 전에서 마땅히 연습할 공간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는데 연습실이 있어 매주1회 정기적으로 연습을 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음악협회가 주최하는 아버지합창제에 참가해 남성합창단의 위상과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 마홀남성합창단은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고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포전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매주화요일 오후8시에 연습하다 보니 모든 일정을 수립할 때

‘화요일은 안돼요’라고 말할 경우가 많아졌다. 포천시에 바라는 사항에 대해 이 단장은 “반월아트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정기연주회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해 주시길 감사드리다”며 “포천시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포천신문에 바라고 싶은 것은 “마홀남성합창단의 정기연주회나 수시연주회, 연습 등의 활동상을 지면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 단장은 “농부들이 팥흙려 열심히 일한 보람으로 풍성한 수확을 맺듯이 서투고 재능이 없더라도 노래가 좋아서 목소리를 다 듣고 최선을 다하여 연주하는 단원들의 모습에 경의를 표하며 노래를 좋아하는 시민여러분이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 마홀남성합창단 주요연혁은 다음과 같다.

- ▶1994.6.25 마홀중창단 창립, 창립연주회 ▶1995.12.15 제2회 정기연주회 ▶1996.12.30 제3회 정기연주회 ▶1997.12.13 제4회 정기연주회



- 주회 ▶1998.12.19 제5회 정기연주회 ▶1999.5.15 중창단을 합창단으로 개편 ▶2000.5.2 제6회 정기연주회 ▶2001.7.28 제8회 정기연주회 ▶2001.11.22 제1회 경기아버지합창제 출연 ▶2002.5.18 제2회 경기아버지합창제 출연 ▶2002.11.30 제9회 정기연주회 ▶2002.12.5 제7회 정기연주회 ▶2003.11.18 제3회 경기아버지합창제 출연 ▶2003.11.30 제10회 정기연주회 ▶2004.11.20 제4회 경기아버지합창제 출연 ▶2004.12.19 제11회 정기연주회 ▶2005.3.2 마홀앨범 제2집 향연 취임 ▶2005.11.4 제5회 경기아버지합창제 출연 ▶2005.11.19 제12회 정기연주회 ▶2005.12.30 제1회 포천시 송년음악회 출연 ▶2006.12.2 제13회 정기연주회 ▶2006.12.8 제6회 아버지합창제 출연 ▶2007.1.10 포천시 신년음악회 출연 ▶2007.4.24 윤봉길 의사 상해의거 75주년 기념 음악회 출연(세종문화회관) ▶2007.10.2 제14회 정기연주회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韓國의 선비정신 · 94

내가 믿는 것은 초가 두어 칸 뿐



리효중 한국한시협회 포천지회장

권벌은 중종의 생모인 정현왕후의 이종사촌으로, 중종때 경상도 관찰사를 지냈다. 그는 여러 고을의 부사를 지냈는데, 한 고을의 수령이 되면 도성의 다른 관청이나 기관에서 이것저것 요구하는 것이 많았다. 그럴 때마다 권벌은 단호히 거절하였다.

하루는 어떤 관리가 찾아와 일을 청탁하였는데, 권벌은 이번에도 끝까지 거절하였다. 그러자 관리가 화를 내며 말했다. “염감은 대체 뭘 믿고 이렇게 뻔뻔한 거요?”

관리의 말속에 왕후의 배경을 믿고 뻔뻔한 것이 아니냐는 조롱이 숨어 있었다. 그 말을 들은 권벌이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믿는 것은 오직 초가 두어 칸뿐입니다.”

그의 아들 동보(東輔)가 능창봉(陵參奉)에 있을 때였다. 동보는 낮은 직위에도 불구하고 늘 번들번들 살이 쪼들고 다녔다. 이를 본 권벌이 크게 노하여 아들을 꾸짖었다.

“네가 겨우 말집에 있으면서 번들번들 살이 쪼들고 다니는구나. 짐승을 살찌우기 위해 말 먹이는 사방을 얼마나 여윌까 했겠느냐. 그러면서 어찌 감히 사람을 구제하기를 바랄 수 있겠느냐?”

권벌은 특히 “자경편(自警編)”과 “근사록(近思錄)”을 좋아하여 늘 소매 속에 넣고 다니며 읽었다. 어느 날 중종이 신하들을 불러 후원에서 연회를 베풀었는데, 모두 실컷 놀다가 술에 취하여 내시들의 부축을 받으며 돌아갔다.

신하들이 모두 돌아간 뒤 내시 한 사람이 뒤뜰에서 “근사록, 한 권을 주웠다. 내시가 누구의 물건인가?”

지 몰라 망설이자 중종이 말했다. “권벌이 떨어뜨린 것이니 돌려주거라.”

한번은 권벌이 식사를 하는데 계집종이 밥상을 들고 오다가 넘어져 그의 옷에 국을 쏟았다. 옷이 다 젖었는데도 그는 조금도 화를 내지 않았다.

그는 오랫동안 벼슬에서 물러났다가 양재역 벽서 사건에 연루되어 귀양을 떠났다. 그때 양송을 담당한 관리가 대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손님을 배웅하듯 태연히 유배지로 길을 떠났다.

그때 진사 금원정(琴元貞)이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소리 내어 울자 그는 웃으면서 말했다. “나는 그대를 대장부로 알았는데 어찌 눈물을 흘리는가? 죽음과 삶, 그리고 사람의 화와 복은 하늘에 달린 것이니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이언적(李彦迪)과 함께 기암을 떠났는데, 권벌이 그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이 찬성과 권 찬성이 한꺼번에 같이 왔으니 이 행차가 얼마나 빛나는가?”

비록 유배를 떠나는 길이었으나 권벌은 조금도 걱정하는 빛이 오라리 농담을 주고받았다. 나중에 사주로 유배지를 옮겨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다.

권벌 1478년(성종 9) ~ 1548년(명종 3) 본관은 안동이며 자는 중허(仲虛), 호는 충재(只齋)·원정(董亭)·송정(松亭)이다. 1496년(연산군 2) 진사에 합격하고, 1507년(중종 2) 문과에 급제하였다. 그 뒤 예문관, 홍문관, 사간원, 사헌부 등에서 요직을 역임하고, 1519년 예조참판에 임명되었다. 이때 조광조를 비롯한 사람들이 왕도정치론을 주장하자 훈구파와 사림파 사이를 조정하려 하였다. 잠시 삼척부사로 나갔으나 기묘사화때 파직되었다.

그후 15년간 고향에서 지내다가 1533년 복직되어 병조판서·예조판서·좌참찬·우참찬을 지냈다. 을사사화가 일어나자 이에 반대하여 대운 세력을 옹호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소윤의 미움을 받아 1547년 양재역 벽서사건에 연루되어 귀양을 떠났다가 사주에서 죽었다. 시호는 충정(忠定)이다.

양재역 벽서사건(良才驛壁書事件) 을사사화 직후인 1547년(명종 2) 9월, 양재역에 문정왕후와 그를 지원하는 윤원형, 이기, 정순봉 등 집권층의 권력 독점과 비리를 폭로하는 내용의 대자보가 붙었다. 윤원형 등 소윤 일파는 법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사건을 그들에게 비판적인 선비를 일망타진하는 계기로 삼았다. 이 사건으로 송인수가 사형되고 이언적, 노수신, 유희춘, 권벌 등 수십 명이 귀양을 갔다.



일생을 미화시킨 1940년대 뮤지컬 전기(傳記) 영화

1940년대 초 할리우드 뮤지컬계는 미국의 우월주의와 애국심에 고취시킨 전쟁소재 뮤지컬들과 청춘스타들을 내세운 백스테이지 뮤지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렇지만 전쟁이 끝나가면서 관객들은 감상적이고 청춘년 취향의 가벼운 뮤지컬들에 대해 흥미를 잃어갔다.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질서가 완전히 재편되면서 관객들의 취향도 변한 것인데 좀 더 새로운 뮤지컬을 원하는 관객 및 평단의 요구가 뮤지컬 제작방향이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기존 뮤지컬들은 이미 박스 오피스의 ‘빅 애플’이 아니었다. 따라서 새로운 뮤지컬이라는 관객들의 욕구에 편승하면서 1940년대 중반 이후부터 기존 뮤지컬들과 차별화된 새로운 뮤지컬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파격적인 안무와 영상 그리고 새로운 얼굴의 신인배우들의 등장으로 이미 할리우드 뮤지컬의 새로운 전성기를 이끌고 있었다.

다소 실험적이고 새로운 뮤지컬들이 제작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한편에서는 타계한 유명배우·작곡가들의 전기를 극화한 뮤지컬 영화들이 하나의 주류를 형성했다. 1942년에 조지 엠 코헨(G.M. Cohen)의 일대기를 다룬 뮤지컬 〈양키 두들 맨디(Yankee Doodle Dandy, 1942, Warner Bros.)〉가 작품성과 상업성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자 메이저 영화사들은 앞을 다투어 전기 영화 제작

에 뛰어들었는데 조지 거쉬윈(G. Gershwin)의 〈랩소디 인 블루(Rhapsody in Blue, 1945, Warner Bros.)〉, 알 졸슨(Al Jolson)의 〈더 졸슨 스토리(The Jolson Story, 1946, Columbia)〉(졸슨 싱스 어게인(Jolson Sings Again, 1949, Columbia)), 콜 포터(Cole Porter)의 〈나이트 앤 데이(Night and Day, 1946, Warner Bros.)〉, 제롬 킨(Jerome Kern)의 〈틸 더 클라우드 롤 바이(Till the Clouds Roll By, 1946, MGM)〉,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처드 로저스(R. Rodgers)와 로렌즈 하트(Lorenz Hart)의 일대기를 다룬 〈워드 앤 뮤직(Words and Music, 1948, MGM)〉 등이 194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주요 뮤지컬 전기영화들이다. 이들 영화의 주인공들은 이미 브로드웨이와 할리우드에서 최고의 작곡가 혹은 배우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들이고 세계 뮤지컬 역사에 중요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었다. 이들 전기영화들은 인물에 초점을 맞추었다기보다는 음악 혹은 노래에 주안점을 두고서 뮤지컬의 정상에 서게 되는 과정을 단순히 나열하거나 했는데 멜로적이거나 다소 감상적인 시선으로 이들의 생애를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줄거리가 빈약하고 멜로적인 대사가 문체가 있으며 감추고 싶은 치부를 허구로 꾸며 미화시켰다는 점에서 지탄을 받기도 했다. 사실 대부분의 작품들이 주인공들을 미화시켰고 많은 부분을 사실과 다르게 허구로 표현했는데

미국 예술계의 우상이기도 한 이들의 일생을 미화시킨 이면에는 미국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스타들을 영웅시 하는 미국인들의 국수적이며 문화 우월주의가 도사리고 있다. 이 영화로 인해 실존하고 있는 상대인물들의 경우엔 사실과 전혀 다른 이미지로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었다. 그렇지만 관객들은 이런 허구적인 오해에 대해서는 관대했으며 오히려 함께 울고 웃으며 영화를 즐겼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로 인해 당시에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

거쉬윈의 일대기를 다룬 뮤지컬은 작곡가로 정상에 오르니까지의 줄거리를 담고 있는데 유럽에서 공부하고 포크와 클래식 전통을 융합한 뮤지컬 〈포기와 베스〉의 성공, 그리고 요절하기까지의 과정이 다스 진부한 대사와 멜로적인 흐름으로 담혀있다. 콜 포터(Cole Porter)의 일대기인 〈나이트 앤 데이(Night and Day, 1946, Warner Bros.)〉의 경우도 그의 인간적인 부분이 잘 드러나 있지 않고 그의 삶에 가장 중요한 동성연애적인 부분이 빠져있어 있지 않다. 제롬 킨(Jerome Kern)의 〈틸 더 클라우드 롤 바이(Till the Clouds Roll By, 1946, MGM)〉는 영화의 흥행면이나 박진감에서는 상당한 호응을 받은 작품이었지만 내용은 역시 허구화되어 있다. 제롬 킨을 기억하는 유명한 뮤지컬 스타들이 케베오의 출연을 마다하지 않으며 총출동했는데

제품 킨의 주옥같은 노래들과 뮤지컬들이 영화 속에 재현되어 흥미를 주었다. 그렇지만 제품 킨의 일생에 있어서 중요한 인간적인 고뇌와 삶의 역경이 묘사되어 있지 않아 단순히 제품 킨을 추모하는 갈라 콘서트라는 인상을 역시 지울 수 없다. 리처드 로저스(R. Rodgers)와 로렌즈 하트(Lorenz Hart)의 일대기를 다룬 〈워드 앤 뮤직(Words and Music, 1948, MGM)〉도 리뷰(Review) 타입의 형식으로 두 주인공의 노래를 엮은 뮤지컬인데 두 사람의 대표적인 노래를 나열하는 것으로 줄거리를 연결하고 있다.

반면에 알 졸슨(Al Jolson)의 전기 일생을 다룬 〈더 졸슨 스토리(The Jolson Story, 1946, Columbia)〉와 만년의 생애를 다룬 〈졸슨 싱스 어게인(Jolson Sings Again, 1949, Columbia)〉은 갈라 콘서트와도 같이 만들어진 앞의 일대기 영화와는 다르게 드라마와 노래가 적절히 가미된 뮤지컬로 평가된다. 이 영화는 알 졸슨이 죽기 전에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또 상당한 흥미를 불러 일으켰는데 이 영화로 인해 알 졸슨은 또한 한 번 스타덤에 오르고 죽기 전까지 몇 년 동안 전기영화에 버금가는 인기를 얻었다.



윤우영 (대전대 교수, 연출가)

예/술/칼/림

사람이 최고의 악기다

사람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가. 개개인이 개성과 특성을 지닌 유일한 자아를 섭취하며 각자의 일터에서 특별한 생활을 함께 영위한다. 사람은 오감(五官)이 낡은 악기의 소리를 내며 살아간다.

그 소리(말)가 어우러져 살아 가는 것이 삶이다. 두 사람이 만나면 듀엣이요, 세 사람이 같이 하면 트리오(삼중주)며, 넷이서 어울리는 사중주(사중주)가 또 그것이며, 여럿이 함께하면 관현악단(오케스트라)이다.

사람이 악기라는 이유 중에 그 하나, 소리(언어)를 사용하며 그 수단으로 생각을 옮겨 창작하여 표현하는 능력의 소유자에게 그렇다. 곧 사람의 소리(말)가 인품이요, 성품이기에 그러하다. 소리(말)중에는 입으로 하는 소리(말)와, ‘눈으로 말해오’ 하듯이 사람의 몸짓이 소리(말)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말은 사람이 살아가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말로써 일기도 하지만 말로써 잃는 것도 많다. 그것은 말이 한낱 소리가 아니고 언어(말)이며, 사람의 길이자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소리(말)을 바가 적은 글도 사람의 분신으로 같은 생명인 것이다. 사람이 내는 악기소리(말)가 곧 사람과 소통하는 인간의 영혼이며 품인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소리(언어)는 사람의 생 각을 나르는데 집념이며 그 품은 항상 사람으로부터 얻게 된다.

그럼에도 지금 현대적 인간의 양심적 가슴의 소리가 훼손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여러 가지 원 인 중에 급속도로 대개한 것은 인터넷의 무분별한 상업주의로

인하여 특히, 예술적(서정적)감이 상처받고 사람이 가고자 하는 좋은 양심의 장애가 되고 있다. 마치 거대한 열풍제조기(인터넷)에 충돌되어 망상증 비슷한 정신적 질환이 유발되는 것이다. 그것이 안타깝게도 선한 인간성의 상실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유한 소리(언어)를 지닌 악기인 사람이 최고의 음색과 음률로 하모니를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

때때로 피아노를 조율하듯이 사람의 소리(언어)도 깊은 내면에서부터 표현까지 반드시 조율(調律)할 필요가 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소위 세상의 지도자를 일컬어 등급이 있었다.

그 으뜸은 사람들이 그가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 (不知有之) 그 두 번째는 사람들이 친근감을 느끼고 찬양한다. (親而譽之) 그 세 번째는 사람들이 두려워한다. (畏之)

그 다음은 사람들이 업신여긴다(侮之) 라는 이 네 가지 등급을 두고 하는 말이다. 기왕에 지도자 얘기가 나왔으니 한 발 더 나아가 보자. 한 시대의 정치적 지도자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이자 사람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 낡거나 부패한 이미 시현대에 율렀던 색은 부류는 사회의 진정한 봉사자(악사)가 될 수 없다. 아마도 잡음을 내는 지도자보다는 자신의 악기로 한음을 내는 유명한 악단의 연주자가 훌륭한 지도자가 되지 않을까 새겨볼 일이다. 그것은 언제나처럼 인간의 보편적 이성과 감성의 지향점에 찬연한 꿈의 깃발이 되기

때문이다. 저기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최고의 관현악단으로써 왜 평양에 갔으며 세계적인 무대를 먼저 선점 하는가 새겨볼 일이기도 하다.

여지없이 다가를 굶던 4월이면 지역별로 사람 중에 사람을 찾아내어 정치무대에 내 보내는 중요한 장이 열린다.

부지런하고 깨끗한 어떤 지도자가 어엿한 사회의 일꾼으로써 인간의 역사의 길에 서서 심부름꾼이 되고 소속된 관현악단의 멤버로서 자신의 악기로 조화로 운 소리(말)를 내도록 파우어 있는 에너지를 선사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칼로 퍽퍽 찢어 제 식구들의 뱃속이나 채우려는 교묘히 위장한 김밥들이 정치인은 정말 안된다. 그리고 누가 굶이 가지 않은 새 형아리인가를 잘 두들겨 꼼꼼히 살펴봐야 할 일이다. 그것이 현명한 판단이며 바른 선택인 것이다. 적어도 이번 4월에는 ‘찬연한 달’이 아니라 이 땅에 찬신한 지도자를 뽑아내는 ‘축제의 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서민이 먼저 살 맛이나 팔뚝을 끌어 부칠 것이며, 배고픈 예술인들도 신이 나서 행복한 세상 만들기에 아름다운 작품을 할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가치의 회복이며 새로운 세상의 이정표를 세우는 일이다.

사람이 최고의 악기며 예술이다. 그러므로 모든 일의 해답은 인간인 것이다.



안익수 시인 제3의문학 주간



수평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229)

3.1운동과 33인③ 박동완 님

박동완(朴東完, 고종 22년 1885년 ~ 1941년) 님은 포천에서 박형순(朴馨尊)님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다.

다섯 살 때부터 독선생(獨先生:가정교사)을 두고 한문을 배웠으며 13세때 포천의 명문가 현석윤님의 따님 현미리와 결혼했다. 부친도 민족의식이 강한 분이었는데 박동완님도 호를 근곡(楨谷:무궁화 꽃)이라고 지을 만치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주의자였다.

1901년 서울로 이주 수하동에 정착, 양사동소학교, 한성중학교,

한성의국어학교 배재학당 대학부를 졸업했다.

감리교 제일교회 전도사, 기독교신보사 서기로 근무하여 당시 교회회를 통한 독립사상과 민족주의 사상 운동에 힘썼다.

미국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 사상에 공감하고 당시 YMCA간사로 있던 박희도(후에 민족대표 33인의 한분이 됨)님으로부터 독립운동에 참여계획을 듣고 이에 적극 찬동했으며 함께 영, 이갑성, 오화영 등과 함께 기독교계를 대표하여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다.

3.1운동에 참가하였다가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2년의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YMCA 소년부장, 신간회 간사를 맡아 민족주의 사회운동에 적극 활동하고 헌신 노력했다. 1931년 만보산 사건(중국 길림성 만보산 지역 수리관계사업을 둘러싸고 일본이 한국인과 중국인과의 관계를 이간질하여 민족분쟁을 일으켜 어부지리(漁父之利)를 얻고 일본인의 간교한 술책으로 일본의 입지(立地)를 강화키 위한 사건: 일본의 민족성을 드러낸 사건으로 중국과 한국의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손해가 막대했

던 사건)이 일어나자 재만동포 응호연맹을 결성 재무부장이 되어 현지의 사정을 조사하고 한·중 양국 국민이 서로 평화롭게 지내는 운동에 힘썼다. 1933년 일본 제국주의가 한반도에서 기세를 부리자 미국 땅 하와이로 망명하여 한인교회 목사로 시무하면서 국내 흥업구락부와 비밀 연락을 취하면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박동완 님은 근곡이란 호를 지닌자답게 살았다. 나라가 일본에게 강제로 점거 당하자 평생 우리 웃인 한복을 입되 바지 대님을 치지 않았다.(나라 잃은 못난 죄인을 자처한 행동)

또, 시계의 보침을 30분 늦게 맞추어 살았다.(표준시가 우리 서울은 30분 늦게 정삼) 1962년 조국은 박동완님에게 건국훈장 추서한 사건: 일본의 민족성을 드러낸 사건으로 중국과 한국의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손해가 막대했

필자연락처 02-932-2434

초대 漢詩

元宵節情景(원소절정경)



양재창 전 포천향교 전교

元宵滿月聳於東(원소만월용어동) 惟願今年五穀豐(유원금년오곡풍) 대보름 둥근달은 동쪽에서 솟아오르네 무자금년에도 오곡이 풍년들기를 오직 바랄뿐이네

一尾靑魚供老親(임미청어공로친) 三杯醞酒授兒童(삼배루주수아동) 한 마리 생선은 늙으신 부모님께 드리고 서너잔 단술은 이해들에게 주려하네

善男擲柳承良俗(선남척사승랑속) 貞女踏橋守古風(정녀태교수고풍) 남자들의 척사대회는 좋은풍습의 이어가이며 처녀들의 다리밟기는 전통풍습의 지킴이네

風火初更興趣盡(서화초경흥취진) 床頭鬪飯禱亨通(상두유판도형통) 흥취를 다한 쥐불놀이네 초저녁에 끝을 냈는데 상에 오른 찰밥을 먹으면서 만시형통하기를 기도하네